



한국의 교과서 평설

저자 | 이종국 출판사 | 일진사

우리나라에 근대 교과서가 도입된 것은 1883년 원산학사였다. 이로부터 우리의 교과서사는 1세기를 훌쩍 넘겼다. 그런 과정에서 교과서의 질적 발전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 과거의 우리 교과서가 남긴 흔적들을 점검하면서 여러 상대적인 뒤안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하기 위해 이종국 혜천대학교 교수가 최근 ‘한국의 교과서 평설’을 펴냈다.

3부로 나눠 한국 교과서 특징과 변환과정 저술

이 책은 전체를 3부로 나눠 제1부는 우리 교과서 정책의 특징적인 현상과 그 변환 과정에 대해 다뤘다. 교과서관에 대한 원론적인 이해를 전개하고, 우리 교과서 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적 현상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제2부는 교과서 출판에 대한 몇 가지 되살핌을 제시했다. 일찍이 독립신문에서 다룬 문교·교육 계몽에 관한 이해, 백당 현재의 교과서 출판 활동, 하와이 이민 사회의 첫 국어 교과서, 그리고 우석 김기오의 출판 사적 등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제3부는 교과서 해제에 관한 이론적 의의를 다뤘다. 그런 다음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후 등 시대별로 추린 18종의 역대 유명 교과서를 대상으로 해제를 덧붙였다.

이종국 교수는 책머리를 통해 “우리의 교과서사는 1백년이 훌쩍 넘었지만 교과서를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는 존귀한 책이라거나 권위 있는 도서라는 인식 외에 깊이 있는 걱정은 소홀히 해왔다. 이제는 우리의 교과서 정책을 차분히 되살피고 그에 기반해 미래를 조감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 교과서가 남긴 흔적들을 점검하면서 여러 상대적인 뒤안에 대한 시각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제한 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 우리 교과서 정책의 특징과 변환과정, 교과서 출판에 관한 되살핌, 교과서 해제에 대한 이론적 의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는 결국 우리 교과서에 대한 총체적인 평설의 일환이라고 본다. 다시 새로운 이바지함을 위해 분석적인 해명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저자 이종국은

수필가. 호는 우양 또는 도당. 혜천대학교 교수, 동 대학 도서관장·한국어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이사, 편집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이 학회 회장을 지냈다. 동 학회 고문, 중국출판과학연구원 해외특약연구원 및 중국화중대학교 편집학연구센터 고문, Publishing Journal 자문위원으로 피촉됐다. 대한교과서(주) 기획출판부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중앙대·경희대·한양여대 강사, 한국언론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고,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이사·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과서관과 교과서 연구’, ‘한국의 교과서 편찬 정책과 그 적용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한국의 교과서상’,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출판연구와 출판평설’, ‘출판 컨텍스트’, ‘교과서·출판의 진실’ 등이 있다. ☞